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11



▶한줄요약
암자의 화재 후 발견된 두 구의 시체는 금어스님과 공양주이며, 그날 암자를 떠난 이는 금어스님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난다.

두 시체 정체는 금어스님과 공양주…

뉴델리에서 며칠 ①

가겟집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 사람들 요상하게 생겨서 뭐 하긴 한대…. 나이가 수월찮니 됐지 아마.

-얼마나요?

사내가 다시 물었다.

-우리 나이로 한 육십 한둘이 되었나?

가겟집 여자가 대답했다.

육십 한둘? 뜻밖이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젊어 보였나? 조실은 이지만 금어를 떠올리며 가겟집 여자를 가림막 틈새로 바라보았다.

-맞아유. 그렇게 되었시오.

-여자가 함께 죽었는데?

-그 한국여자, 공양주야요.

-공양주?

-아, 스님 밥해주는 사람 말이오.

-그래요? 그 여잔 몇 살이나 되었소?

-한 쉰 됐나? 소문에는 이곳에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가 공양주로 들어왔다던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수첩을 긁적거렸다.

-두 사람이 부부였나요?

수첩에서 눈을 떼며 사내가 물었다.

-부부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얼굴에 머물자 에라 하는 표정이 스쳤다.

-시봉이 하나 있었시우.

-시봉?

-그래유. 제자 말이우.

-그래요?

-그놈이라니까. 그놈이 불을 지르고 도망하는 걸 보았다니까.

주인 남자가 갑자기 발작하듯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맞아유. 막 점심을 먹고 나서는데 그놈이 피가 벌겋게 묻은 손을 바지에다 닦으며 요 앞을 지나가더라고. 이상해서 내가 나가 보니께 암자에 불이 났더라고….

-그럼 시봉이란 자가 사람을 죽이고 불을 낸 뒤에 도망을 갔다 그 말인데?

-맞아유. 맞다니께유.

-그 시봉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곁의 사내가 메모하는 동료의 눈치를 살피다가 물었다.

-이제 스물예닐곱이나 되었나? 한국 사람들 영 나이 가늠이 안 되더라고….

주인 남자가 가까스로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시봉이라고 하셨는데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인가요?

메모하던 사내가 갑자기 그렇게 물었다. 두 시체가 부부간처럼 생각되었던 모양이었다.

-그건 모르겠고 시봉이 맞다니까. 그 사람들 자식이 아니야. 한 번도 아비 어미라 부르는 걸 보지 못했어. 스님이라고 불렀어. 공양주에게는 보살님이라고 불렀고…. 아들이 아녀.

주인 여자가 손바닥으로 눈을 비비며 말했다.

-시봉 이름이 뭐였나요?

메모지를 흔들며 사내가 물었다.

-이석원이라고 했지 아마. 이석원. 한국말 정말 요상해.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대답이 정확한가 하는 표정을 지으며 가겟집 여자가 남편을 돌아보았다. 조실이 듣기에 주인여자는 이석원을 이서가윙이라고 발음하고 있었다.

-맞어요. 성이 이가라고 하데. 이름은 석원이었고. 자주 물건 사러 들락거렸으니까. 얌전했는디….

남편이 아내의 말이 맞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석원을 이서가윙이라고 발음하고 있었다.

-그럼 스님들이 자주 드나들었겠군요?

다시 메모장을 흔들며 사내가 물었다.

-맞어유. 방금도 왔다 갔는디. 스님들이 자주 드나들었시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대충 그 정도에서 초벌 탐문이 끝났는지 사내 둘이 마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실은 그들을 흘끔거리다가 열린 문을 통해 가겟집을 나왔다.

조실이 가겟집에서 본 사내들을 천추사원에서 다시 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뒷짐을 지고 도량을 쓰는 사미의 비질을 보고 있었는데 어제 가겟집에서 본 사내 둘이 들어섰다. 그들의 앞을 객을 맞아들이는 지객(持客) 스님이 가로막았다. 어제 가겟집에서 돌아왔을 때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왔다 갔다고 일러주던 그 스님이었다. 조실은 모르는 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내 지객스님의 음성이 조실실 밖에서 들려왔다.

-큰스님 뵙자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지객스님이 자신을 찾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물었다.

-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며 형사들이 나왔습니다. 큰스님을 뵙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시거라.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조실은 대답했다. 신도들을 제도하다 보면 큰스님으로서의 체면을 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근기가 약한 신도들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도 함부로 굴기 일쑤다. 그렇다고 매양 엄숙하게 대하면 그 스님 참 재미없다거나 너무 엄숙해서 싫다며 멀어져 버린다. 그때마다 부처님이 왜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 즉 대기설법을 하셨는지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기야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친다고 해서 알아들을 리 없다. 그저 근기에 맞게 신도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 대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싫다. 만만히 보이지 않기 위해 가식적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러나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부터 든다. 부처님처럼 사람 보기가 무섭게 근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대해야지. 그런데 아직도 미욱한 중생이라 꼭 대해봐야 그런 생각이 드니 사람 보는 눈이 모자란 것이 분명했다. 척 봐서 아는 느낌. 그 느낌이 정답일 터인데 그게 되지 않는다. 공부도 그렇지 않은가. 부처님은 새벽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깨달았다. 우주의 이치를 한순간에 깨친 것이다. 별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길래 깨친 것일까?

그렇다. 깨침은 느낌이다. 느낌은 본질이다. 느낌이 직관이라면 나의 직관이 얼마나 무디기에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근기를 모르겠다. 그러니 자연히 가식적으로 대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제도가 헷갈리는 것이다.



문이 열리고 어제 가겟집에서 본 사내 둘이 방으로 들어섰다. 가겟집에서 흘끗 스쳤으니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사내 하나가 스쳐 가는 조실을 유심히 보았던 모양이었다. 불이 난 곳이 암자이고 보면 스님 복장이라 눈길을 끌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 어제 가겟집에서 보았던…?

아차 싶었다. 이때는 어떡해야 하나?

-그렇소이다. 가겟집에서 뵌 것 같구려.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시구려. 그런데 무슨 일로?

사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실렸다.

-그러잖아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절의 조실스님이라니….

-그럼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될 뻔했구나.

뒤늦게 사태를 알아챈 메모장의 사내가 동료를 쳐다보며 말했다. 역시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말할 나위 없었다. 이미 그들은 이지안 금어의 신상 명세를 파악한 뒤였다.

-불이 난 암자를 창건한 것은 2020년 6월이더군요. 어제 이곳 책임자를 만나려고 왔다가 입수한 것입니다.

역시 메모장의 사내가 말했다.

-그러시오.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죽은 이는 잉지안. 나이가 68세더군요. 맞나요?

-잉지안이 아니라 이지안!

-잉지안! 조사를 해보니 이 절을 지을 때 그림을 맡아 그린 스님이라고요?

-그렇소이다.

-여권을 조사해 보니 체류 기간이 지났던데요?

-연장한다고 하더니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그러니까 연장하려고 하다가 불이 나 죽었다 그 말 아니요?

-일이 그렇게 되었구려.

-그럼 남자 시체 곁의 여인은 공양주가 맞습니까?

-맞소이다.

-시체의 상태로 보아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던데?

-지안스님과 비슷한 연배지요.

-62세?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님의 아내가 아니고 공양주가 맞나요?

-맞소이다.

-그들 사이에 젊은이가 있었다던데…. 뭐 시봉이라고 하던가? 아들이라고 하던가?

-아들이 함께 있었지요.

사내가 메모장을 내려다보았다.

-잉서가윙?

조실스님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풀썩 웃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아들 이름이 이석원이오.

-그 스님 나이가 27세 맞습니까?

조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쯤 되었을 게요.

-불이 난 직후 그가 암자를 떠났다고 하던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소이다.

사내가 고개를 또 갸웃하다가 눈을 감았다. 이상하지 않으냐는 표정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내들이 더 무엇인가를 캐물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몸을 일으켰다. 서로 들어가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듯이.

그들이 다시 천추사원으로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다. 그들은 이상하게 공양주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공양주라고 하는 양점순 씨 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절 지을 때 한국에서 건너왔다면서요?

나름 저들 식으로 조사를 해보았던 모양이었다. 하기야 여권만 조사해도 그만한 정보는 얻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 어제 더 묻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 있을 터였다.

-그렇소이다.

-스님께서 데려왔다고 하던데 나이도 몰라요?

그건 또 어디서 들었느냐는 말이 나오려다가 도로 넘어갔다. 절간 내 누구에겐가 물었을 것이었다.

-공양주 이력서 보고 뽑소이까? 그런 나라도 있소? 이 나라는 그런지 몰라도 내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오.

-그럼 어디 사람이라는 건 알 거 아닙니까?

-한국사람 아니오?

정색하고 조실이 대답하자 사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풀썩 웃었다.

-내 말은 한국 어디서 왔느냔 말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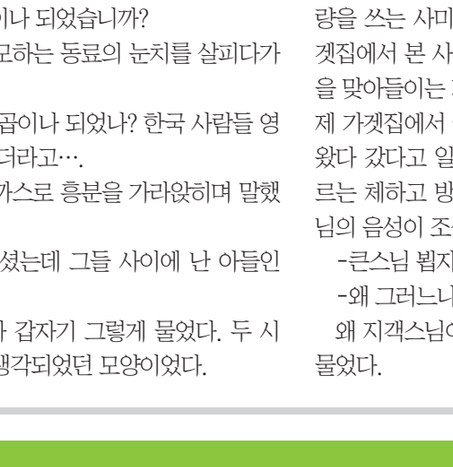
-그걸 알면? 한국의 전라남도를 아시오? 구례읍 영천동 877번지. 60세. 그게 내가 아는 다요? 됐소?

조실이 눈을 부라리고 역정을 내자 사내 둘이 흠칫했다.

-그러니까 스님의 아들이라는 젊은이 말입니다. 공양주의 아들은 아니다 그 말이요?〈계속〉

오프라 윈프리는 왜 명상에 열광하는가?

화제의 신간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중훈 | 192쪽 | 15,800원

"제가 명상을 하면 1000%는 더 나은 사람이 되거든요."
–매일 제 중심을 잡고 저를 위해 명상을 하는 겁니다–

4월 2일(일) 12시 30분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김말환 법사님의 <붓다의 명상> 강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공의 필수 습관이 된 명상!
스티브 잡스, 빌게이츠, 마이클 조던은
왜 명상에 열광하는 걸까!
뇌과학을 통해 증명된
명상의 중요성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마음을 바르게 보는 메커니즘을 밝혀 심리 작용을 알려주는 마음 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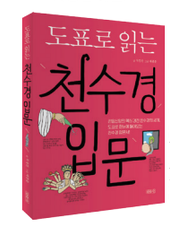
●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불교의 깊이와 지혜를 담아낸 본격 불교 교리 입문서!



●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붓다의 생애, 가르침, 역사, 계율, 교단 성립이 한눈에!



●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뜻 모르고 독송하던 천수경의 자상한 해설서!



●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를 일상어로 풀어낸 최고의 불교 입문서!



●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 중요 경전(20종)의 요점을 한눈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